

화재·응급시에는 119 신고!



"119"란?

화재로 소방차를 불러야 할 때, 응급(위급한 병, 큰 부상) 상황으로 구급차를 불러야 할 때는 "119"에 전화하세요. 소방서로 연결됩니다.

-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입니다
- 휴대폰에서도 걸 수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통역서비스

• 고베시에서 119에 신고하는 경우 일본어 이외 5개국어의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응언어(5개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119 신고 요령

(1)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먼저 당황하지 말고 명확하게 “화재”인지 “응급”인지 알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통역사와 연결하기 때문에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2) 도움이 필요한 장소(주소나 쉽게 눈에 띄는 건물 등)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주소를 모를 때는 가까운 전신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다면..

[화재인 경우]

- 무엇이 타고 있는지
- 어떻게 타고 있는지
-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응급인 경우]

- 성별, 연령, 인원수
- 의식과 호흡 유무
- 부상(정도), 증상



(3) 당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현장을 모르는 경우, 응급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소방서에서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때문에 신고한 다음 구급차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화 사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